



## 2014 어도비 MAX, 모바일 크리에이티브의 새 지평을 열다 CC 데스크톱 툴과 신규 모바일 앱 긴밀한 통합 지원

어도비는 지난 10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4 어도비 MAX(2014 Adobe MAX)'에서 데스크톱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작업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자료제공 | 한국어어도비시스템즈

어도비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13개 필수 CC 데스크톱 툴의 주요 신기능 업데이트와 신규 통합 모바일 앱 패밀리를 공개했다. 포토샵 CC와 일러스트레이터 CC 최신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8과 서피스 프로 3의 터치 지원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크리에이티브 프로필(Creative Profile)'로, 이를 통해 포토샵, 라이트룸,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등 신규 모바일 앱 9개와 CC 데스크톱 툴 간에 더욱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모바일 앱 개발이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SDK' 공개 베타 버전을 출시해, 크리에이티브 개발

자들을 위한 써드파티 앱 혁신의 새 장을 열었다.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 인재들을 연결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인재 검색(Creative Talent Search)' 서비스도 선보였다.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와드와니(David Wadhvani)는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함께 어도비 혁신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2014 어도비 MAX를 통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주요 CC 데스크톱 툴에 긴밀히 통합된 새 모바일 앱 패밀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를 크리에이티브의 주류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라며, "크리에이티브 인재 검색 같은 새로운 기능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수백만 회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서비스

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크리에이티브 프로필 앱·디바이스 한계 없이 사용 가능

이번 크리에이티브 릴리스에 포함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프로필(Creative Profile)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작업 시 사용한 에셋, 작품, 관련 커뮤니티 등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파일, 사진, 색, 브러시, 모양, 폰트, 텍스트 스타일, 그래픽 등을 포함한 에셋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프로필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따라 앱과 디바이스를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에셋을 적절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통합 이끄는 모바일 앱

이번 릴리스는 필수 CC 데스크톱 툴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라이트룸의 새로운 모바일 앱 패밀리 간에 보다 유기적인 통합을 제공한다.

포토샵 스케치(Photoshop Sketch)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새로운 브러시 기능을 제공하며, 포토샵 CC와 일러스트레이터 CC에서 통합된 작업이 가능하다. 업데이트된 포토샵 믹스(Photoshop Mix)는 모바일 기기에서 보다 정교한 합성 기능을 제공하고 포토샵 CC와의 통합도 한층 강화된 한편,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라이트룸 모바일(Lightroom Mobile) 앱은 데스크톱과 모바일의 통합된 워크플로를 구축하고, 고객, 친구, 가족들이 온라인에 공유된 사진 중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신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의 GPS 정보는 라이트룸 데스크톱과 동기화된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어도비 아이디어(Adobe Ideas)가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우(Illustrator Draw)로 재탄생했다.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우에서 사용자들은 선호하는 벡터 드로잉 툴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일러스트레이터 CC와의 완벽한 통합과 어도비 잉크 및 슬라이드에 대한 강화된 지원으로 현대적이고 간편한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 정밀묘사 앱인 일러스트레이터 라인(Illustrator Line)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그들이 원하는 모양을 그대로 그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능과 오리지널 벡터 패스(Path) 전체에 액세스해 편집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터 CC에 스케치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어도비 프리미어 클립(Adobe Premiere Clip) 앱이 새롭게 출시됐다. 어도비 프리미어 클립을 이용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찍은 영상을 공유하기 편하도록 편집할 수 있다. 비디오 전문가들은 프리미어 클립에서 만든 작

품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에 보내 좀 더 심화된 편집과 마무리도 할 수 있다.

## 일상에서 포착한 디자인 활용할 수 있는 '캡처' 앱

일상에서 포착한 디자인을 창작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캡처' 앱인 어도비 브러시 CC(Adobe Brush CC), 어도비 셰이프 CC(Adobe Shape CC), 어도비 컬러(Adobe Kuler)를 공개했다.

어도비 브러시 CC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독창적인 브러시를 만들어 이를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스케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사진으로도 브러시를 만들 수 있어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사진과 동일한 브러시부터 유기적이거나 회화적인 혹은 그래픽적인 브러시까지 포괄하는 고 퀄리티의 아름다운 브러시를 빠르고 즐겁게 디자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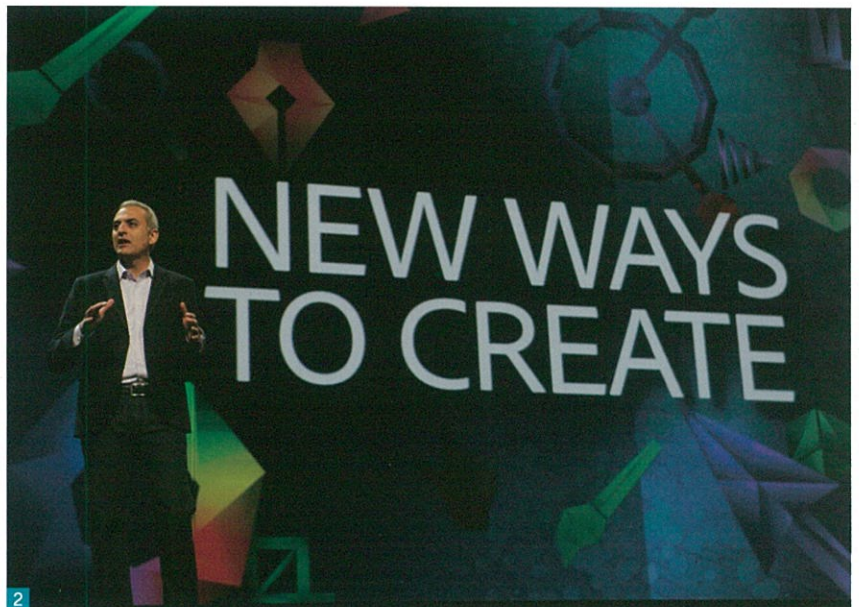
어도비 셰이프 CC는 어디서든 영감을 받으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담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간편하고 독창적이며 즐거운 방식의 앱이다. 의자, 애완동물, 손글씨 등 다양한 고 대비(high-contrast) 사진을 벡터 아트

(vector art)로 변환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일러스트레이터 CC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라인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어도비 컬러의 새로운 버전인 어도비 컬러 CC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색을 캡처해 테마로 저장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다른 어도비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툴이다.

이러한 모바일 앱들은 모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 회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연동되는 새로운 써드파티 모바일 앱 개발을 활성화시킬 크리에이티브 SDK의 공개 베타 버전도 출시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SDK는 [creativesdk.adobe.com](http://creativesdk.adobe.com)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업데이트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회원들에게 멤버십의 일부로서 멤버십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모바일 앱과 업데이트된 앱들은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adobe.com/kr/creativecloud/catalog/mobile.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산타누 나라옌 어도비 대표가 2014 어도비 MAX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2. 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부사장은 주요 데스크톱에 통합된 새 모바일 앱 패밀리를 소개했다.